

[종합·해설]

“작통권 환수 국회 동의 거쳐야”

역대 국방장관 “국민 생존·국가 존망 걸린 중대 안보사안”

환수 논의중단 등 성명서 채택
운국방 군원료 폼하 발언 사과

김성은, 이상훈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연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 9명은 1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의회관에서 회동,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 국회동의 절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재홍·서종철·노재현·윤성민·이기백·오자복·이상훈·이종구·최재창·이병태·이양호·김동진·김동신·이준·조영길 등 역대 국방장관 17명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백선연 예비역 대장 등 군 원로 9명도 함께 했다.

국방장관 몇몇과 저녁을 함께하며 작통권 환수 추진과 관련, 군 원료를 폼하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이 전 국방장관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 10일 한중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역대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이 회의를 마친 뒤 윤창로 예비역 준장(왼쪽)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사면 논란

盧측근 2人



안희정씨 신계륜씨

안희정 “죄송한 마음 뿐”

신계륜 “조용히 지낼 것”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측근 사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은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인 안씨는 10일 자신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달리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며 “문제로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안씨는 “제 입으로 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2002년 11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신계륜 전 의원은 이날 “겸허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사면이)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정직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

‘장성군수 당선무효 소청종료’ 결정에

소청인들 이번엔 ‘소송’ 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소청을 낸 소청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이유로 ‘소청 종료’ 결정을 내리자 나머지 소청 참가인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청(여·63)씨 등 장성지역 주민 4명은 10일 “5·31 지방선거에서 유두석 후보가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관할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 7명을 상대로 광주고등법원에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3일 제기된 선거 무효 소청사건에 참가한 소청참가인들로, 소청인인 이병직(62) 전 장성군수 후보가 지난달 24일 돌연 숨진 뒤 선거위가 소청인 사망을 이유로 ‘소청 종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 이날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 군수가 선거 3~4개월 전 민주당에 입당하고 지난 2월에는 당내 경선에도 참가했음에도 이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것은 명백한 무효”라며 “선거위가

등록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위원회 자체 표표를 거쳐 부결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소청 종료 결정과 관련해 “선거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그 영향은 경쟁 후보 뿐만 아니라 선거인 모두에게 미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은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선거소청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내려진 종료 결정에 대해 소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가자들이 소청 다음 단계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법적 해석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진만기자 cki@kwangju.co.kr

“작통권 환수 국회동의 사항 아니다”

송민순 靑 외교안보실장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 여부에 대해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그 반대 현상이므로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때도 국회 동의를 안 받았고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시 작통권 행사가 위협이라는 견해에 대해 송 실장은 “만약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통권을 미군에 넘겨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원하면 동맹으로 남을 것”

버릴 벨 주한미사령관

버릴 벨 주한미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0일 한국 정부가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한국군의 역량을 신뢰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당사자가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벨 사령관은 또 “한국이 원하는 한 믿을만한 동맹으로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서 2007년 말까지 주한미군을 이전의 3만7천500명에서 2만5천명 안팎으로 줄여줄 것지만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위층 범죄자

감형 등 특혜 많아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 고위층이 조세포탈과 뇌물수수, 불법대선자금 수수 등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과 특별사면,복권 등 특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등의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고위층 131명을 대상으로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대우 없이 제대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나정숙 서구의회의장

민주, 제명기로 결정

민주당은 10일 당론을 어기고 타당 소속 구의원들과 연대해 의장이 된 나정숙 광주 서구의회의장을 제명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난 2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나 의장 제명 안건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중앙위원회는 나 의장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구의원들과 연대해 의장이 된 것은 지방선거때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제명을 추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화안니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니')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괴물' and '하반도')

괴물 (Movie advertisement for '괴물')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다세포소녀' and '하반도')

하반도 (Movie advertisement for '하반도')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다세포소녀' and '하반도')

씨너스 광주 8개관 (Cinema advertisement for 8 theaters in Gwangju)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Legal notice regarding company merger and share registration)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safety notice)

청록산악회 (Cheongrok Mountain Club notice regarding hiking and training)

광주산악회 (Gwangju Mountain Club notice regarding hiking and training)

전통 침술·뜸 무료 강좌 (Traditional Acupuncture & Moxibustion free lecture advertisement)

분양대행 전문회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분양대행 전문회사')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safety notice)

청록산악회 (Cheongrok Mountain Club notice regarding hiking and training)

광주산악회 (Gwangju Mountain Club notice regarding hiking and training)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Roof waterproofing advertisement for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